

디자인비엔날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디자인의 대항연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 23일까지)가 개막 1주일 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시는 수준 높은 기획과 이색 작품이 대거 출품됐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상품 이전의 디자인 가치를 탐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우리 삶 속의 다양한 디자인을 선사해주는 이번 전시를 놓치면, 또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 재단도 폐막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막바지 관람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d = \frac{D}{E} \neq d$$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23일 폐막한다. 사진은 인기작 중 하나인 '대장간'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오후 4~6시에 오면 느긋하게 관람 가능=폐막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일선 초·중·고교생들의 단체 관람이 잇따르고 있다. 오전 시간에 만 7000~1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고 있어, 관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곤욕을 치를 수 있다. 단체 관람객은 피하는 게 상책이며, 가장 한가한 오후 4~6시에 전시장을 찾으면 느긋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작품들이 있다. 전시 주제가 어렵다면 승효상 감독의 추천작을 우선 골라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개막에 앞서 승 감독은 아이웨이웨이의 '필드' '바이크행어' '폼데가르송의 여정' '슬레이브 시티' '새들은 가로질러 난다' '대장간' 등의 작품을 추천했다. 또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이색 작품도 눈여겨 보자. '작업아

카데미'는 관람객이 모래를 삼으로 퍼 나르거나 흙을 이용해 거대한 항아리 만들기에 동참하고 화초에 물을 줘 식물도 기를 수 있는 작품이다. 또 친환경 자전거 거치대인 '바이크행어'도 관람객이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막바지 부대 행사도 풍성=가장 인기작 중 하나인 '바이크행어'의 작가 안지영·이상화씨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전시장에서 관람객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현장에서 다양한 토크의 벌일 수 있도록 '현장 허브'를 진행하는데, 이날 안씨 등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재미난 디자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이크행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자전거가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무공해, 무전기로 작동하는 혁신적이고

일요일 폐막... 승효상 감독, '필드' '바이크행어' 등 추천 22~23일 시민참여 '주말콘서트' 즐거운 공연 이어져

기능에 충실한 고밀도 자전거 보관 시설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또 오는 22일과 23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주말콘서트'에도 풍성한 행사가 준비됐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월봉어린이 국악관현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타운아코디언팀, 박이창식 퍼포먼스, 광주전남가수협회, 엔시안 요델클럽이 참여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전광미 홍보

사업부장은 "이번 전시에는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색 작품들이 많아 관람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면서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표정한 군인들, 현대사회의 폭력성

최요안 개인전, 롯데갤러리 19일~11월 2일

광주 롯데갤러리는 19일~11월 2일 청년작가창작지원전에 선정된 최요안 작가의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최씨는 '밀리터리 소셜 콤플렉스'(Military-social complex)를 주제로 현대 사회와 군대를 대비 시킨 신작을 선보인다. 현대인의 모습과 삶이 고스란히 담긴 신문지를 배경 화면으로 붙인 뒤, 신문지를 이용해 군복을 플라주 기법으로 만들었다. 또 무표정한 군인들의 얼굴은 현대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과 전체주의를 보여 준다. 이 밖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등 군부 독재가 우리 역사에 남긴 다양한 사진을 차용해 완성한 작품도 눈에 띈다. 특히 이들 작품에는 작가가 6년 동안 군 생활을 했던 경험이 녹아있어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나온 뒤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정됐고, 대한민국남미술대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구상대제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불취기존, 조형21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1-18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쿠라 꽃이 피었습니다'

소리꾼 김주희의 '심청가' 한마당

목요일연극, 20일 빛고을국악전수관서

소리꾼 김주희<사친>씨가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주최하는 목요일연극악화마당 무대에 선다. 20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보성에서 여생을 보낸 소리꾼 박유진이 창시한 강산계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을 들려준다. 또 대구 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미애씨로부터 사사한 임이조류 '허튼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 출생인 김씨는 전남대 예술대

학 국악과와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제1회 수궁가왕창 발표회를 시작으로 2006년, 2008년 두 차례 '적벽가' 발표회를 가졌으며 2008년 창원 아철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부, 광역지역문화재단협의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문화재단 등 전국 11개 광역지역 문화재단들로 이뤄진 '광역지역문화재단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광역지역문화재단들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해 지역문화 정책 개발, 문화예술 진흥 지원,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 나눔 사업, 문화시설 운영, 문화재 발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문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문화재단

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부와 지자체들이 추진할 다양한 지역 문화 정책 관련 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경북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 문화부는 이 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승우 소설 '생의 이면' 일본어판 출간

소설가 이승우(51·조선대 교수) 씨의 소설 '생의 이면' 일본어판이 출간됐다. 이씨의 대표작인 '생의 이면'은 1991년 출간돼 저자에게 대산문학상을 안긴 작품이다. 소설가인 화자 '나'가 다른 한 소설가를 추적해 그의 삶을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쓰인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2000년에 프랑스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언론에 크게 소개되면서 2000년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이번 소설의 출간을 맡은 후지와라 쇼텐 출판사는 '고은 시선집' '윤동주 평전' 등을 출판한 곳이다. 번역은 김순희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제교류센터, 내일 김순임 교수 초청 국제이해강좌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 신경규)가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국제교류센터(전일빌딩 5층)에서 김순임<사친> 전남대 독일언어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문화 간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국제이해강좌를 갖는다. 김 교수는 이날 강좌에서 문화권별로 서로 다른 관습에 대한 사례를 소개

하고, 이문화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접근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의 062-226-27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울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절동출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6900 · 369-9227 무료전화 080-222-8855